

“중장년 재취업 종합서비스 강화”

고용부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논의
이정식 장관, 중장년 훈련생 격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개소 확대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
폴리텍 훈련인원 1만명까지 늘릴 것

정부는 중장년층이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폴리텍의 훈련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규모를 현재 25개소,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 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

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발제에서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며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년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 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2032년 기준 약 8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식품부, 첨단기술 새싹기업 창업박람회

대기업·투자사 상생협업 기회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 및 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를 비롯해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 기업홍보(IR), 민간·국유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대형유통채널 전문가(MD) 품평회 등이 열린다. 또 해외진출 세미나 등 해외진출·투자·기술 분야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25일 예정된 개막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시부스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



엑스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뿐 아니라 투자·판로·기술·해외진출·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특화된 농식품 첨단기술 박람회로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엔 총 280여 곳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그린바이오와 애그·푸드 테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식품 창업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접수

채권발행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녹색자금 조달·이자비용 지원 사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녹색자금 조달과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137

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상반기 동안 74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억 6000만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송미령 “매일 농축산물 점검회의 주재할 것”

(농식품부 장관)

정부비축 배추 보존상태·물량 점검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중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4일 경기 이전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비축 배추의 보존 상태·물량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회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판을 설치해 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제가(장관) 매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t) 규모의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비축기지 점검 결과, 현재 보관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경기 이전에 자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를 찾아 배추 보존 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오는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향후 산지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현재까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배면적이 감소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도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의 수확작업 등 공급여건에 따라 시장 공급량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하량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비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만132ha로 지난해(6만8567ha)와 평년(3만3876ha)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과 생육이 부진한 오이 등의 일부 채소류 가격은 뛰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직업상담 업무에 생성형 AI 활용 ‘긍정적’

고용정보원,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공공 및 민간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직업상담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들을 탐색하고, 직업상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활용 사례 44건을 담았다.

텔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상담 및 전직 지원 현장 전문가들은 직업상담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상담의 대표 직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능력단위) 40개 중 17개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재부, 주요국 美 대선 대응상황 공유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불확실성·지정학적 위험 확대 우려

김범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미 대선 관련 정책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는 “재경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교의 첨병인 해

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각국의 신속한 동향 보고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상황이 급변한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 및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흐름, 기업의 탈중국 동향과 전망, 일본의 슈퍼 엔저와 임금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재경관은 주요국의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 및 정책 제언을 향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